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의 관속식물상

- 남해, 가라산, 통영지역을 대상으로 -

Flora of Hallyŏ-Haesang National Park

- Case Study of Namhae, Karasan and Tongyŏng Areas -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조경학과*, 호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김용식* · 임동욱** · 전승훈*** · 신현탁****

I. 연구목적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맑고 깨끗한 바다와 수많은 도서 및 리아스식 해안으로 형성된 빼어난 자연자원을 지니고 있어서 1968년 12월 31일 우리 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이우철과 임양재, 1978). 본 국립공원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식물상의 조사는 아직 없었으며, 다만 각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는 종합적인 식물상 조사를 실시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식물의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II. 조사방법

본 조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을 세 지역 즉, 거제도, 남해 및 통영 지역으로 구분하여 3개 팀이 각각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 1998년 5월, 7월 및 9월 3회에 걸쳐 8일간 조사하였다. 조사경로는 주된 등산로나 예전에 지역주민이 이용하였던 계곡부 도로를 이용하여 식물을 조사하였다. 현지 조사는 설정된 조사경로를 따라 좌우 10~20m 폭의 범위에 들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발고도를 측정한 후 식물상을 기록하고 채집하였다. 조사경로의 확인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25,000의 지형도를 사용하였고, 해발고도는 디지털 고도계를 사용하였다. 조사 채집된 관속식물종은 대한식물도감(이창복, 1980)의 배열순서에 따라 목록으로 작성하였고, 식물구계지리학상 또는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특정식물종의 분포에 대해 정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가라산 지역

해발 300m 이하의 저지대는 상록활엽수림과 온대남부식물종이 우점하고 있는 지역이나, 과거에 비해 저지대의 토지경작, 조림, 벌채와 같은 인위적인 간섭이 심하여 이 지역 고유 임상인 상록활엽수림은 숲의 형태 보다는 몇몇 개체와 같이 극히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대표적인 상록활엽수림에 속하는 수종으로는 천선과나무, 머귀나무, 줄사

철나무, 예덕나무, 동백나무, 참식나무, 사스레피나무, 감탕나무, 감태나무(백동백나무), 삼지닥나무, 비목나무, 송악, 마삭줄, 상산, 큰천남성 등이 분포하였다. 온대남부수종에 속하는 낙엽활엽수종으로는 느티나무, 때죽나무, 나도밤나무, 굴피나무, 서어나무, 개비자나무, 자귀나무, 개서어나무, 소사나무, 초피나무 등이 분포하였다.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는 온대남부식물과 중부식물이 함께 분포하는 낙엽활엽수림이 우점하는 지역으로서 저지대에 비해 인위적인 간섭이 심하지 않아 임상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를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낙엽활엽수종으로는 졸참나무, 서어나무, 소사나무, 야광나무, 고로쇠나무, 물푸레나무, 까치박달, 산딸나무, 신갈나무, 사람주나무, 당단풍, 피나무, 쇠물푸레, 팔배나무, 돌배나무, 진달래, 생강나무, 노린재나무, 병꽃나무 등을 들 수가 있다. 본 조사에 밝혀진 가라산 지역의 관속식물종은 총 73과 129속 153종 16변종 및 2품종 등 총 171종류였다.

2. 남해지역

금산지역은 해발 450m까지는 곰솔림이나 곰솔과 굴참나무가 혼효한 상태이고 그 이상은 활엽수가 분포한다. 주된 식물은 당단풍, 예덕나무, 운노리나무, 팥나무, 사스레피나무, 산딸나무, 소사나무, 자귀나무, 생강나무, 개웃나무, 비목나무, 개서어나무, 팽나무, 감나무, 쪽동백나무, 물푸레나무, 산벚나무, 노각나무, 팔배나무, 산뽕나무, 나도밤나무, 산가막살나무, 조록싸리, 땅비싸리, 해변싸리, 쇠물푸레, 때죽나무, 함박꽃나무, 편백나무, 왕대, 졸참나무, 굴참나무, 감태나무, 사람주나무, 아까시나무, 사방오리, 밤나무, 국수나무, 작살나무, 자금우, 송악, 찔레, 히어리, 참싸리, 진달래, 수리딸기, 단풍나무, 족제비싸리 등이 확인되었다. 초본은 달뿌리풀, 미국가막사리, 물억새, 달맞이꽃, 망초, 패지풀, 강아지풀, 쑥, 골풀, 고사리, 녀출고사리, 마, 계요등, 노루발풀, 주름조개풀, 꽃머느리밥풀, 산거울, 제비꽃, 수까치개, 도꼬로마 등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본 지역에서 확인된 식물은 117과 296속 373종 53변종 7품종 3교잡종 등 총 436종류(taxa)였다.

3. 충무지역

(1) 미륵도

용화사 주변의 서어나무군락의 경우 수고 15~20m 정도, 흉고직경 50~70cm, 수관폭 10~15m 정도이며, 중층은 때죽나무, 합다리나무, 나도밤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등이 혼효하고 있다. 하층은 나도밤나무, 굴참나무 등의 치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으로, 미륵산에서 가장 식생이 양호하며 다양한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풍화리 지역에는 10m×10m 정도의 면적에 약 10개체의 삿갓나리가 생육하고 있다.

(2) 비진도

비진도는 현재 곰솔이 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백나무, 생달나무,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이 부분적으로 산생하고 있다. 현재 상록활엽수림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은 수포리 주변의 선유대 부근으로 현재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참식나무, 육박나무, 후박나무 등의 상록활엽수의 군락이 많이 남아 있으며, 접근이 어려워 현재 보존은 양호한 상태이다. 또한 군데군데 개죽도리 군락이 산재해 있으며 법정 희귀식물인 대홍란의 자생지를 확인하였다. 비진도에는 천연기념물 제 63호로 지정된 팔손이군락이 있는데, 이곳은 현재 외항에서 가까운 해안에 자생하고 있으며, 바다쪽으로 제방을 쌓아 길로 이용하고 있다. 상층은 느티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생달나무, 곰솔 등이 우점을 이루고 있으며, 중층은 동백나무, 생달나무, 느티나무, 천선과나무, 후박나무 등이 혼효하여 있다. 하층은 팔손이, 동백나무, 천선과나무, 생달나무 등의 상록활엽수의 치수가 발달하였다. 따라서 인위적인 간섭이 없다면 앞으로 차대의 형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초본층은 거지덩굴, 송악, 자금우, 고비, 광대수염, 갈퀴덩굴, 풀거북꼬리 등이 생육하고 있다. 총 자생지의 면적은 약 131m×20m 정도이며, 경사는 30° 정도로 해안 방파제와 접하고 있다. 통영지역은 97과 280속 475종 53변종 5품종 1교잡종 등 총 434종류(taxa)였다.

IV. 결론

본 조사는 1998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8일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의 관속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125과 396속 573종 83변종 11품종 3교잡종 총 670종류(taxa)로 조사되었다. 이중 남해지역은 117과 296속 373종 53변종 7품종 3교잡종 총 436종류(taxa), 가라산 지역은 73과 129속 153종 16변종 2품종 총 171종류(taxa), 통영지역은 97과 280속 475종 53변종 5품종 1교잡종 총 434종류(taxa)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최근의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총 117과 395속 636종류(taxa)보다(국립공원관리공단, 1994) 약간 많게 나타났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한 전 지역은 난대수종인 풀고사리, 봉의꼬리, 동백나무, 후박나무, 팔손이, 송악, 참식나무, 비파나무, 자금우, 상산 등의 초본 및 상록활엽수종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한반도를 8개 아구로 구분한 것 중 남해안 아구에 속하였다(이와 임, 1978). 한편 가라산(585m)이나 금산(681m) 지역은 감탕나무, 감태나무, 나도밤나무, 개비자나무, 예덕나무, 사스레피나무, 자금우, 마삭줄 등의 남부 아구에 해당하는 수종이 많이 나타나므로 북병산(임, 1997)과 같이 남부아구의 특징을 보였다.

특정 야생 동·식물(환경부, 1994)이나 한국의 희귀 및 위기 동·식물(한국자연보존협회, 1990)에 포함된 수종으로는 보춘화와 대홍난이 존재하였으며, 자생식물(환경부, 1978)로는 개죽도리 금낭화, 노루오줌, 돌나물, 바위채송화, 산괴불주머니, 얼레지, 쯤비비추, 천남성, 하늘타리, 홀아비꽃대 등 총 11종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단군성전 주변에서 분포하는 개죽도리, 얼레지, 천남성, 금낭화(식재) 등은 보존의 가치가 높으나, 계속된 인간의

간섭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북곡 저수지 상부에는 히어리가 수림하에 많은 개체가 분포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요망된다. 비진도의 팔손이군락(천연기념물 제 63호)이나 학동의 몽돌 해안가와 더불어 동백림과 팔색조번식지(천연기념물 제 233호)는 계속된 보호와 관리가 요망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은 도서지역이고, 주민들이 주로 어업에 종사하지만 생활 터전으로 인근 산을 농작물 경작지나 관상수 및 유실수 농장으로 활용하거나 이들 주변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위락시설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립공원 지역과 비교할 때 식생의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특징적인 식생과 식물상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